

# 봉사는 나의 수행 “뭐든지 한다 어디든 간다”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봉사단



◇ 불기둥기 삼매에 빠진 관음사 봉사단원들.

“어느 영역, 무슨 일든지 한 가지 봉사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1인 1봉사’ 운동을 제창하며 2003년 불교계 자원봉사를 거침없이 이끌어 온 봉사단이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봉사단이 바로 그 단체. 하루 자원봉사 활동 인원이 무려 1500명에 이르는 이 봉사단은 20여개에 이르는 봉사모임을 구성, 대구는 물론 경북·경남지역 곳곳을 누비며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정성을 녹인 봉사를 실질적인 포교로 연결시켜 많은 불자들의 발심을 돕기도 했다.

“올해의 열불봉사를 결산해보니 봉사 활동 횟수가 200회를 넘어섰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응한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열불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상과 봉사가 둘이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김희길 단장 말대로 연회봉사단은 올해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봉사활동’의 대명사가 됐다. 상주가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염불로써 빌어주는 사람들. 이들은 지하철 참사 때에도 일상을 접고 시민회관과 지하철역을 오가며

기도와 봉사에 마음을 쏟았다. 7년이 넘는 봉사를 이어가면서도 매주 장의봉사 교육을 거르지 않는 열정이 녹아 더욱더 빛이 나는 자비행이었다.

대구시의 내로라하는 큰 병원들에 포진해 있는 병원봉사단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영남대병원, 대구의료원, 광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호스피스, 목욕봉사, 병실기도

## 1500명 회원 ‘1인 1봉사’ 운동

지하철 참사 때 염불 기도 빛나

장의·목욕봉사 등 전문성 겸비

대우시의 내로라하는 큰 병원들에 포진해 있는 병원봉사단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영남대병원, 대구의료원, 광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호스피스, 목욕봉사, 병실기도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50~60명이 그 많은 활동을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은 환자의 쾌유를 비는 일념기도와 함께 매년 3,000권에 이르는 불서 보시까지 하고 있다. 또, 150시간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간병인 못지않은 전문성을 보인 불교간병인회 회원들 역시 지체부자유자 목욕봉사 등의 꾸준한 활동을 꾸리는 중이다.

봉사활동은 산문 안에서도 이어졌다. 탄탄한 교리공부로 기본을 익힌 이들은 생활속 작은 실천의 귀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불기둥기 봉사단은 크고 작은 사람 10여 곳을 순례하며 불기둥기 봉사를 벌였다. 관음사를 비롯한 은해사, 해인사, 흥제암의 촛대와 향로 등은 모두 이들의 손길과 정성이 녹아든 불구(佛具)들이다. 이들은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듯 수년째 한

마음 보시를 실천한다. 색다른 봉사도 있다. 불교대학의 ‘인드라마’ 동호회에서는 기자단을 주축으로 불교 뉴스를 생산한다. 신도 기자단이 직접 취재·기사화하는 뉴스는 관음사 소식뿐만 아니라 지역불교의 현황 등을 현장감 있게 다뤄, 불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선사한다는 평을 듣는다.

이 밖에도 교도소 봉사단은 이미 십수년째 재형교도소를 찾아 교리 및 찬불가 지도를 맡고 있으며, 군부대 봉사단은 수시로 50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와 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대구보건대와 협력해 대규모 무료 진료소를 펼치는 ‘사랑의 해민사’ 사업 역시 매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좋은 인연’을 통해 불우이웃을 위한 밑반찬 제공과 무료급식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음식공양과 함께 음성공양 혹은 선무(禪舞)공연 등을 선보여 불교문화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실천의 상징 ‘보현보살’을 닮은 영남불교대학 봉사단. 몸을 아끼지 않고 하루하루 바라밀 실천에 발을 내딛는 이들이 있었기에, 불자들의 2003년 한 해도 부처님 법 안에서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간성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용(慈容) 스님 (上)

### 세간과 함께 하는 ‘인간불교’ 실천

대만 타이페이외의 국부기념관(國父紀念館)에서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불광산 성운 대사의 불화강좌가 열린다. 1965년부터 시작된 불화강좌는 1967년부터 중국의 국부인 손문 선생을 기념해서 세운 국부기념관에서 매년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황색과 흑색의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무대의 양쪽을 채운 가운데, 장대한 의식에 따라 향과 꽃이 불전에 바쳐지고 나면 성운 대사가 등장해 대중을 향한 법문을 시작한다.

이 불화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연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성운 대사의 강연에 감동된다. 이 불화강좌는 불광산의 역량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법회로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거대한 행사를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마련이다.

이 불화강좌를 비롯해 막후에서 보이지 않게 불광산의 위용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바로 자용 스님이다. 1936년 대만 이란(宜蘭)에서 태어난 자용 스님은 현재 국

제육, 웅변 등의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부모가 18세 때 이란의 뇌음사(雷音寺)에 데려간 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청년회의 합창단과 독서회 등에 가입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 성운 대사를 따라 대장경 영인(大藏經影印) 홍보를 위해 전국일주를 했다.

원래는 동문 사형인 자해, 자해가 스님들 보다 먼저 출가하려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늦어졌다. 특히 자해와 꽃이 불전에 바쳐지고 나면 성운 대사가 등장해 대중을 향한 법문을 시작한다.

이 불화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연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성운 대사의 강연에 감동된다. 이 불화강좌는 불광산의 역량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법회로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거대한 행사를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마련이다.

이 불화강좌를 비롯해 막후에서 보이지 않게 불광산의 위용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바로 자용 스님이다. 1936년 대만 이란(宜蘭)에서 태어난 자용 스님은 현재 국 제 불광회 세 계 총회 비서 장과 불광산 신도대학 학장이며 <인간 위생TV>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자용 스님을 만나는 이들은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능숙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환갑을 넘긴 세수에도 깨끗하고 수려한 용모를 지닌 채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감복하게 된다.

자용 스님은 성운 대사의 유명한 제자들인 자장(慈莊), 자혜(慈慧), 자가(慈嘉), 심평(心平) 스님 등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속성은 오(吳) 씨이다. 어려서부터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했으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뛰어났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온갖 행사를 주도했으며 학교를 대표해 무용, 기악을 연주하며

유치원에서 일을 하며 서서히 가족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다가 인연이 무르익어 1969년, 드디어 불광산에서 득도함으로써 오랫동안의 소원을 이루었다.

불광사가 창건된 지 몇 년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성운 대사는 자용 스님을 일본의 교토불교대학에 유학시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했으며 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 연구하도록 했다.

“법회는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인간불교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계속)

김재경 기자



◇ 대만의 불교 케이블 TV인 인견위성 TV 사장 자용 스님.

### 능숙한 행사 기획력, 자비로움 겸비

### 불광도량 건립과 복지 사업에 앞장

## ‘눈높이 법회’가 통했네요



◇ 시립요양원 수계법회에서 지연 스님이 어르신에게 수계증과 염주를 건네주고 있다.

### 요양원 어르신 20명 수계 이색 찬불가로 종교 화합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만큼 어르신들께 부처님 마음 역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12월 13일 서울시립요양원에서는 종교가 다른 20여명의 요양원 어르신들이 수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 법회를 이끌어 오던 관음사 지연스님과 4명의 법회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자리다.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년간 법회에 참석해 불법을 함께 나눈 어르신들

을 위해 이들은 수계 법회를 계획했다.

“1년 전 법회를 처음 열었을 때 요양원의 불자는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눈높이도 고려하는 동시에 타종교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회를 생각해 왔지요. 간단하지 않은 법회였지만 오늘 20명의 수계자를 낳게 돼서 기쁩니다.”

1명을 20명으로 늘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법회 봉사자들은 ‘즐거움 법회’를 위해 묘안을 짜냈다. 그 가운데 가장 흡입력 있었던 것은 바로 ‘이색 찬불가’ 포교. 이들은 아리랑 가락에 찬불가 가사를 입혀 놀이처럼 음성공양에 몰입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에 다니던 어르신, 세례를 받은 어르신 할 것 없이 부처님 말씀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요양원의 한 수계자는 “한 해를 마감하는 법회에서 다양한 종교인의 화합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며 “힘들게 시작한 법회를 다양하고 내실있게 이끌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간성재 기자

##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델리-기원정사(금강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교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겐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아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델리

▶출발일: 2월 10일

####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몰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슈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겐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아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교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인나푸르나등 히말라야산맥)-카투만두

▶출발일: 2월 7일

####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델리-자이푸르(라즈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주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지)-알라하바드-바라나시(겐지스강, 녹아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2월 12일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 ※ 2월 10일 출발

#### 중국불교 4대 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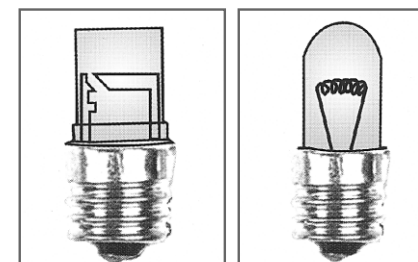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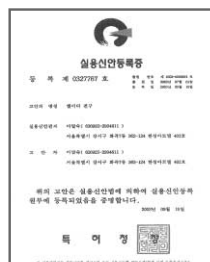
귀의삼보하하고 불자기업 기반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철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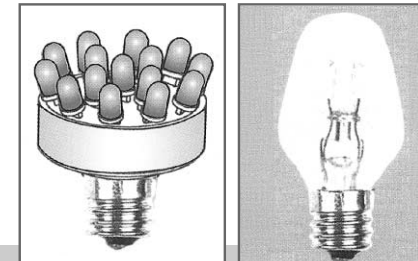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를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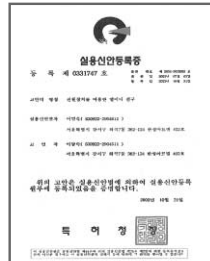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더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부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동 3호)

TEL : (02)2266-9098, 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